

경주캠 총학 재선거 논란

중선위 위원 잇따른 사퇴... 책임감 문제 제기

지난해 무산되었던 경주캠 총학생회 재선거가 오는 28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입후보자의 자질과 등록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간강과 총학생회(이하 야총) 부회장 이승현(호별경영4)군은 야총 부회장직을 사퇴한 후 총학생회 입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는 야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부회장직을 사퇴하며 학생회 간부로서의 책임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강훈·경영4 이하 중선위)의 총학생회 입후보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사

태가 빚어졌다. 중선위에서 후보자 자격 박탈에 대한 논란이 일던 가운데 중선위원 과반수가 자격 박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지난 15일 오후 3시까지 등록금을 미납해 후보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를 제외해 준 후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차후 중선위에서 자격심사를 다시 하자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해당 후보자는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과 같은 학내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총학생회 입후보자를 등록금 납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중선위 경고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훈 중선

위원장은 "총학생회가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와 등투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후보자는 등록을 마친 학생들에게만 자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선위원은 물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 정재훈(사북4)군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평평한 의견 대립을 보여 차기 총학생회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네, 네, 풀인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만해광장에서는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 한마당이 열리고 있다.

김은선 기자
eunsun@cakra.dongguk.ac.kr

지면안내

- 이색전시관, 골라본다 7면
-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 4면
- 동아리 길라잡이 5면
- '숨결' 시사화 6면



자비와 사랑의 힘

정성본 (불교문화대 불교학)

모든 종교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종교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실천정신이 무조건의 자비와 사랑이다. 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통적으로 무조건의 자비와 사랑을 부르짖는 것일까? 아마도 자비와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비와 사랑은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옛날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하고 정복과 전쟁의 비참함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전쟁에 의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자비의 덕을 실천하도록 보급하는 일이 진정한 승리다."라며 국내의 여러 나라에 평화 사업을 파견한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례이다.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에 의한 평화의 정치가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진실한 우정으로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실천을 말한다. 즉 대자(大慈)란 중생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베풀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연을 베푸는 실천이다.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은 조건 없는 베품인 「무연(無緣)의 자비행」을 강조한다. 무연이란 나오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광명을 얻게 하기 위한 대자대비의 보살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자대비의 실천은 자신의 존재나 위치를 제쳐두고 인류와 중생을 위한 진정한 보살정신에서 높고 깊은 사랑이 몸과 마음으로 실현된 인격으로 저절로 우러나게 되는 것이다. "남을 존경하고, 자신을 겸허히 삼가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비폭력이라 할 수 있다." 라고 간다가 말한 것처럼 자비와 사랑은 남을 용서하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보살도에서 남도 이롭게 하고 또한 자신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은 중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일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기쁨과 환희에 찬 행복한 인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한다.

출판부 새책 출간 '불교와 도가사상' 등

출판부(부장=김병수)는 '불교와 도가사상', '숨어있는 황금의 꽃', '불교학 개론'을 출간했다.

불교와 도교의 연관성을 설명한 '불교와 도가사상'은 본교 김형배(철학)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불교와 도교를 현대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한 '숨어있는 황금의 꽃'은 만해 함용운의 문학과 해방 후 50년의 문학사에서 불교의 역할을 조명하는 문학평론집이다.

한편 '불교학 개론'은 한글개정판으로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자매결연 인명사전 편찬기로

본교는 중국 전국고교·대학교적정리 연구 위원회와 '한국한학가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자매결연을 지난 14일 맺었다.

이를 위해 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북경대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4일 본교를 방문했으며 18일까지 △한국한학가인명사전 편집회의 △규장각 방문 △경주 캠퍼스 방문 등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한학가인명사전은 한국의 역대 한학자와 현재 활동중인 학자들까지 정리해 국내 최초로 편찬되며 중국에서도 중국어로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도서관 앞에서 학원지주회투쟁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4)는 △2000년 등록금 인상저지 △교육재정 6%확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폐를 위한 학원 자주화 투쟁 선포식을 지난 16일 도서관 앞에서 진행했다.

신입생을 비롯한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선포식은 등록금 인상반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은희(수교4) 사범대 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반대에 6천여

총학, 학자투 선포식 진행

등록금 동결에 초점맞춰져... 학교측에 요구안 전달

명의 학생들이 서명했다"며 "학생들이 단결해서 등록금을 동결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승준(철4)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직원임금인상과 불교종합병원 건립은 등록금인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13% 인상은 실업자가 1천3백만이나 되는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해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승복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학교당국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교육정

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석철(국문3) 문과대 학생회장은 "정부는 이미 교육재정 6% 확보를 포기한 상태"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BK21 사업으로 본교에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것도 등록금 인상의 한 원인"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학생들은 본관으로 이동하여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항의했고 총학생회는 총장실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요구안을 통해 △등록금 13%인상안 철회 △불교종합병원의 재정확보방

안 공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공개 △교육환경개선 △학생 자치공간 확보 등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학교측의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복 총학생회장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규장집회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당국에 따르면 17일 현재 서울캠은 77%의 학생이 등 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cakra.dongguk.ac.kr

동대신문은 본사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유권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0 총선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 참여하기」

하나, 반드시 투표한다.
하나, 부패 무능 정치인, 지역감정을 조정하는 정치인의 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정치개혁을 위해 나로부터 실천한다.
하나, 대학생 유권자 운동에 동참할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한다.

동대신문사

경주캠 화재발생 노천극장 뒷산에서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경 경주캠 노천극장 뒷산에서 불이나 소나무와 잡목 등 약 0.1ha를 태운 뒤 1시간 여만인 오후 4시 30분경 진화작업을 마쳤다. 산불 발생 10분 후 경주시청 헬기 1대가 동원됐으며 경주소방서(서장=김영복) 소방차 3대와 공무원과 본교교직원 등 2백여명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주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바



경주시청 공무원과 본교 교직원이 진화작업중이다.

람이 크게 불지 않아 피해 규모는 작았으나 방화림 또는 소방도로 설치가 요구된다"며 본교 방화시설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알림

본사 수습기자 선발관계로 27일자 신문은 쉼니다. 다음 신문은 4월3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그날밤... 동숙이는 동대신문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몹시 궁금하였다.

발전기금 ARS 7000-119

수습기자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서울·경주 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시진·만화·인터넷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마감 : 3월 23일(목) 오후 5시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선발방법 : 간단한 시험과 면접
- 선발일시 및 장소 : 3월 23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진로지도특강 실시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는 오는 29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특강을 실시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관 중앙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장래진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특강에 참석한 학생에게 진로가이드와 특강 자료집이 배부될 예정이다.

음료가격 인하

오늘(20일)부터 학교에서 판매하는 음료가격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제 20차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이사회에서 음료수 매입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판매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코카콜라, 환타, 네스카페, 칠성사이다, 레쓰비 등 다섯 품목은 450원에서 50원이 인하된 400원으로 판매된다.

이와 함께 생활 이사회에서는 '생활복지장학금'을 위해 3천 5백 56만원의 추가 결정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일반학생들과 대학원·학부이사, 학생복지위원들에게 우정 장학금과 간부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복위, 학내복지사업 시작

29일부터 소강당 영화제 실시

학생복지 위원회(위원장=유명곤·산공4)는 지난 14일부터 학내복지사업들을 시작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산과 배드민턴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액정이나 비디오테크 등의 공인품도 함께 대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학림관 소강당에서 '소강당 영화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터 사고로 5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부상을 당해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며 "예전처럼 많은 학생들이 학복위 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화된 폐강기준 부분적 혼란 있어

전자공 50여명 항의시위 ... "전공 폐강 반대한다"

2000학년도부터 폐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공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수강인원 4명 미만에서 올해부터 △1·2학년은 8명 미만 △3·4학년은 해당 전공(학과) 재학생의 10% 미만 일 때 폐강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강좌가 계속

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비해 줄어드는 강좌의 수는 현저히 적어 폐강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전공교과목의 폐강을 반대하는 시위를 본관 앞에서 벌였다. 전자공학과와 전공교과목 중 하나인 '디지털 통신'은 최소한 26명의 재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어야 했으나 수강인원이 17명밖에 안되 개정된 기준에 의해 폐강되었다.

△4학년의 경우 졸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전자공학과 학생회장에게 면담을 제안하고본관 앞에 모인 학생들에게 모두 해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폐강공고는 방학 전에 실시되는 수강신청 후 단대별 교학과 앞에 게시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폐강기준은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강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폐강되는 강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사진/김현중 기자

지난 14일 전공교과목의 폐강을 반대하는 50여명의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본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학사지원실은 폐강공고가 있을 후 약 일주일 정도 폐강된 강

좌의 수강생에게 안내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김은선 기자 eunsun@cakra.dongguk.ac.kr

박영석, 마갈루봉 재도전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눈앞에

박영석(동국산악회, 체교91졸) 동문이 이끄는 '2000 동국 마갈루·시사팜마 원정대'가 세계 제5위 불인 마갈루를 향해 오늘(20일) 출발한다.

이번 원정은 지난 98, 99년 기상악화로 철수한 바 있는 마갈루봉에 재도전하는 것이며, 아시아 최

초로 히말라야 8000m이상의 14좌 완등을 목표로 하여 시사팜마에도 함께 도전한다.

이로써 원정대는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 가운데 K2와 브로드피크 2개의 봉우리를 남겨놓고 있으며 이는 오는 6월 등장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학교예산의 운영과 그 밖의 불교종합병원 건립문제, 이월적립금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논의되었다.

또한 학자투 이영수(전통4) 위원장은 1학년 대표자들에게 신입생들의 등록금 중 13% 인상된 부분에 대한 환불서명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유진(가교1) 학생은 "학내 복지문제를 비롯해서 등록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내기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학년 대표자 회의 진행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학4)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이하 학자투)는 지난 16일 정보문화관에서 2000학년도 1학년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약 25명 가량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과(반)대표의 지위와 역할 △과도론회의 의미 △13% 등록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학교예산의 운영과 그 밖의 불교종합병원 건립문제, 이월적립금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논의되었다.

또한 학자투 이영수(전통4) 위원장은 1학년 대표자들에게 신입생들의 등록금 중 13% 인상된 부분에 대한 환불서명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유진(가교1) 학생은 "학내 복지문제를 비롯해서 등록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내기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과기준 완화, 전공결정시기 변경

"원하는 전공을 마음대로"

2001학년도부터 시행, 전공선택 폭 넓어질 듯

내년부터 새로운 전과제와 전공결정제가 시행된다.

새로 바뀐 전공결정제도는 전공결정시기를 현행 2학년 2학기가 아닌 2학년 1학기로 바꾸었으며 전공을 결정한 후에도 2학년 2학기에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집인원이 학과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전체성적의 평점 평균으로 선발하던 것이 대학이정공통과목의 이수여부가 전공결정 기준에 포함된다.

개정된 전과제도는 1학년 말에서 2학년 말로 신청시기가 변경됐고 전입학부 기준점수의 20%이내로 선발하던 것이 50%이내로 확대된다.

단, 사범대는 20%이내이며 편입학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성적기준도 누계평점평균 3.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되며 현행제도와 달리 특기자 전형 입학자의 전공변경도 가능 하다.

한편, 이미 전공변경을 했던 학생이 휴·복학을 거쳐 3학년으로 진급할 경우 다시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전공결정시기를 한 학기 앞당긴 것은 자기의 전공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전공변경이나 전과제를 통해 다른 분야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전형 입학생 중 △영어 우수자는 영어영문에 △독일어 우수자는 독일학에 △일본어 우수자는 일어일본에 △중국어 우수자는 중어중문에 △문학 특기자는 문예창작전공에 △실업계고교전공자는 해당전공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단, 학생이 지정된 전공이외의 타전공을 신청하면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수학, 과학 특기자는 우선 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학칙에 신설됐다.

이로인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됐다.

김현중 기자 roket123@cakra.dongguk.ac.kr

회전무대

초저속 인터넷

O... "초 슬로우 동국인터넷(?)" 지난 달 개강을 앞두고 정보관리처에서 인터넷 연결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LAN공사를 했는데.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배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별반 다를게 없다고. 게다가 심심하면 다 운되는 인터넷이 등장해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답답할 지경인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커다란 날개를 달아 다시 태어나... 나는 초고속 동국인터넷"

도인

O...도를 아십니까? 요즘 교내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그림자가 조용히 찾아온다. 알아보니 본교 졸업생을 빙자한 한 도인(?)이 휴식 중인 사람들에게 우주진리에 관한 강연 아닌 강연을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락한 휴식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짜증까지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도를 모르면 레, 미, 파, 슬은 어떻게 알아요?!"

신고정신

O... "도둑 잡았다" 지난 15일 동국관에 경찰관 3명이 출두해 한바탕 소동을 벌였는데, 알아보니,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려 찾던 중 한명을 도둑으로 지목했고, 이어 발생한 싸움으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출동한 경찰 왈 "요즘 학생들이 투철한 신고정신 덕분에 하루가 짧아"

베를린 선전전

O... "에... 선언해 부렸어요" 얼마전 김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 선언이 아니라 남북간의 부차적인 문제들만 거론했다고.

이는 국내 총선을 의식해, 국외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세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독일에선 대의용 남북통일, 한국에선 총선용 동서분쟁?!"

여학생실 단기강좌

여학생실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습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단, 정원이하 강좌는 폐강됨. 최대 수용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됨)

- 1. 접수기간 : 2000. 3. 16(목) ~ 3. 24(금)
2. 접수장소 : 계산관(사법대 열거동) 1층 안내책상
3. 대상 및 수강료
가. 대상 : 동국인 누구나(선착순마감)
나. 수강료 : 20,000원(수강료 5,000+재료 및 교재대 15,000)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강좌 교육기간
2000년 3월 28일 ~ 5월 4일

Table with 5 columns: 강좌명(정원), 강사, 내용, 요일/시간(장소), 비고. Includes courses like '선물포장법 & 꽃장식', '이미지메이킹', '스포츠 및 사치 & 체력관리', '댄스 & 댄스'.

여 학생 실

편입생 교직이수예정자 신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69호, 99. 12. 31)과 관련하여 편입생중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대학에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편입한 학과(교직과정중인학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소정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 1. 신청 접수대상 : 2000학년도 현재 재학생중 전적 대학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교에 편입한 후, 편입학과(교직과정중인학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자
2. 신청서 접수기간 : 2000. 3. 22(수) ~ 24(금)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법대학 교학과

사 법 대 학

생협우정장학 및 으뜸장학생 선발

본교 2000학년도 1학기 우정장학생 및 으뜸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1.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가. 장학금액 : 1인당 720,000원
나. 선발인원 : 30명(우정장학생 : 22명, 으뜸장학생 : 8명)
2. 선발대상
가. 가정형편이 매우 곤란한 자(보호자의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학생)
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평균점수 3.0이상)
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접수기간 : 2000. 3. 20(월) ~ 23(목), 오후 3시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각 대학 교학과
다. 장학금 지급 : 3월 말경 개인계좌(동국가족통장) 입금처리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보호자의 재산세(미)과세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기타 가정형편이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학 생 처

총학생회 해오름식

일곱 학우들의 정성을 계승하고 새내기들이 민족동국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날 일만이천 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들을 함께 표출하고 등록금 동결과 학원 자주화 투쟁의 승리를 위한 그 한길에 함께 나아갈수 있으면 합니다.

일곱학우여!! 그대가 살고자 했던 세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 3월 29일 전아제 새내기 농구 한마당 결승마당 추모행사 새내기 뽀내기 마당 새내기·재학생 대동 한마당

등록금 동결!! 이제 백만이 함께 합니다.

- 3월 30일 민족동국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해오름식 본마당 등록금 동결!! 교육재정 6% 확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패를 위한 한총련 공동연대투쟁

* 3월 29일 늦은 5시부터 일만이천의 하나됨을 만해광장에서 함께 만들어가요!! 그리고 3월 30일에는 백만이 물결치는 서울서대 곳곳에서 우리 함께 해요!!

민족동국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당국간 대화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베를린 선언'의 의의

김대중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해 왔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남북관계를 윈-윈 게임(win-win game)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을 햇볕본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고 있다. 즉 남한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경제회복 지원 및 국제적 진출에 협력하는 대신에,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대남무력도발 포기,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 준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 포기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김대중정부의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확대되었고, 점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더욱 국제화되고 남북당국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을 당국간대화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지난 3월 10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히고 있다. 베를린 선언은 대북 경제지원,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을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2년전 취임사에서 제의했던 특사교환을 북측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대통령은 당국간 대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하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 기존 정책 수정 필요

북한은 지난 3월 15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당국이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남북한 당국간 대화와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세공조포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애국단체의 활동보장 등의 선행 실천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는 4월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베를린선언을 수용했을 경우에 북한체제에 미칠 부

정적 영향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북한이 베를린 선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위싱턴과 도쿄를 거쳐 서울로 오겠다는 정책기조하에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 4월 이른바 '철천지 원수'인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백년속적'인 일본과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적'으로 부각된 남한과도 화해할 경우 주적의 상실에서 오는 내부 통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베를린선언의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실리와 체제유지 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포용정책을 표면적으로 비난하면서 남한당국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북한은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당국간 대화에는 전제조건 이행과 충분한 반대급부 또는 조건없는 성의 표시가 전제되어야 응할 수 있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통일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미, 북-일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 '조화와 병행치원'에서



고 유 환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정경연계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북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총선을 치뤄야 하는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대북 '시혜'나 '양보'를 전제로 한 점잖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를린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대북정책이 국내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내부사정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당국간대화를 통한 의미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햇볕정책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대통령의 임기 내에 무엇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은 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민족의 숙원사업이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유병문 선고공판을 보고

지난 17일 본교 96년 총학생회장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유병문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루어졌다. 약 500여일 동안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유병문씨는 4년간의 수배생활 끝에 법정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새천년을 맞아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과거 정권시절의 수배해제 문제를 풀겠다"며 '조계사 정치수배해제 농성단'으로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와 농성단측은 "김영삼 정권시절의 정치수배자들이 자진 출석해 수사에 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배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조계사 농성단을 비롯한 정치수배자들은 검찰로 자진 출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진 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수배해제 하겠다"는 애초 입장과는 달리 6명을 선별구속했다. 96년 연대항쟁의 폭력성과 한총련의 이적성,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국가존립을 위협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96년 당시 4기 한총련 의장 및 각 지역총련 의장들의 판례를 들어 중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지법에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또한 적법기준이 애매하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판례를 이용한 것은 최근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도 국가보안법을 반 인권법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있다.

유병문 씨는 그의 시집 '양수리에서'를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만인을 위해/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만인을 위해 / 내가 먼저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만인을 위해/ 내가 먼저 싸워야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곳('시와 사랑의 한술밥' - 동국문화회 중에서)

만인을 위해 감옥에 갇힌 유씨는 다시 사회로, 동국으로, 동국문화회로 돌아와야 한다.

총선 수업 논란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14일 총선 공동 수업 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획안은 후보지지 근거 발표, 부모의 정당 선호도 조사 등을 포함한 초·중·고별 수업모형이다.

여기에는 교과서에 이미 나와있는 민주주의 정신·유권자의 권리행사·후보자의 판단기준·지역감정의 원인과 극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서 내용을 미리 앞당겨 배우는 것일 뿐이라고 전교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총선 공동 수업은 사회시간 또는 학급회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학생들의 후보 지지근거 발표·부모의 정당 선호도 조사 등의 일부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아무리 정규과정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교과과정을 전교조가 개입해 무리하게 미리 앞당겨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계획안의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과정 에 대한 교양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같은 우려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여겨진다. 총선에 관한 공동 수업 내용의 일부가 한 이익단체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정치정신을 일깨워 주기위한 의도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감정이나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좌우되는 이제까지의 정치적 구태를 벗어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이 계획안이 이해되고 실시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대책수립

“말보다 실천이 앞장서야”

신입생 미충원 ... 현실적 대안 절실

IMF의 영향으로 많은 고학력 실업자가 나타나는 현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는 전과 달리 많이 변했다. '학문 연구의 장'에서 '취업 준비하원'으로 그 의미가 퇴색해버린 대학은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게다가 지방대에서 나타나는 '신입생 미충원' 현상은 지방대학의 운영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9학년도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92.8%를 지방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대학이 신입생 미충원으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문제라고 할수 있다. 일반 대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에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의 입사자 가운데 지방대학 출신 사원이 불과 17.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기업들이 수도권대학 졸업생을 선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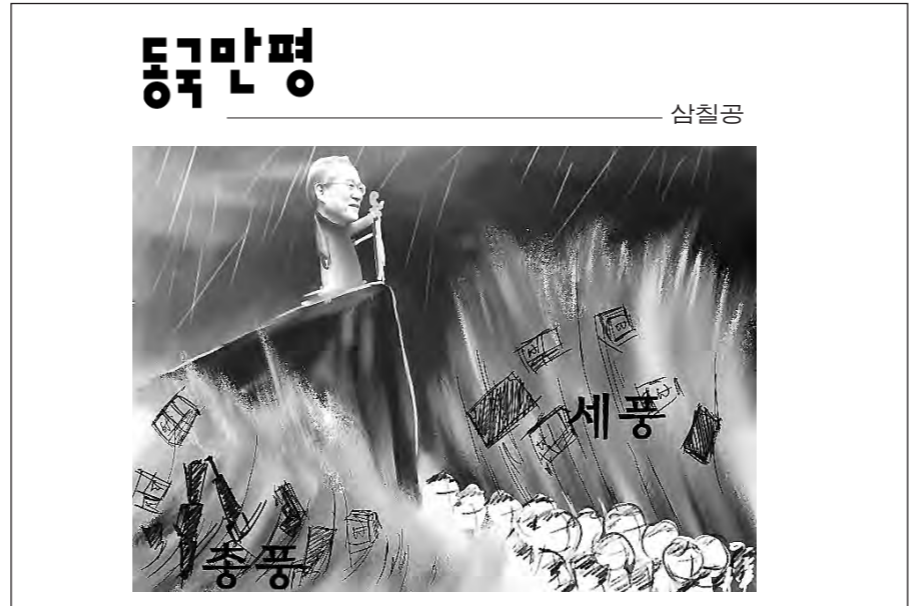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중북 합격한 사람들이 자연히 수도권 소재 학교로 불리게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미충원'이라는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능 상위 5%의 학생의 62.5%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지역우수인재가 서울로 유출돼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꾀하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과제를 살펴보면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교육여건 개선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축 △산·학·관 교육 공동체 구축 △우수학생 유인체제 구축 △지역주민과의 연계체제 구축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대책의 대부분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진학모형'을 '권역별 인근대학 중



심의 진학모형'으로 비구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친화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세워진 검토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말 확정 발표 할 계획이다.

새 세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 대책'과 같은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제도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있는지 생각해 봐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특성화공대 육성지원사업, 공과대학중점 육성사업, 지방대 특성화사업 등 정부에서 보여준 지방대학 육성추진 노력들이 모두 한 날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 우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두뇌한국(BK)21사업'의 결과가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것을 볼 때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의문이다.

박지영 기자
starfeast@hanmail.net

동약로

캠퍼스 난장



지난 16일 은방울 녹아원, 원효관 중정, 원효관 앞 자주광장, 시계탑 사거리는 서로 다른 행사들로 분주했다.

녹아원에서는 동아리 연합회의 출범식이 있었고, 원효관 앞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각 동아리 가두모집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원효관 앞 자주광장에서는 동맹휴업 결의대회가, 뒷편 원효관 중정에서는 모 학과의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곳을 지나가던 한 학우는 "어디에 참여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모두 중요해 보이는데"라며 주춤거리기도 했다.

다른 많은 학생들 또한 애프터소리와 음악소리 사이에서 갈 곳을 몰라 서성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치 오랜만에 열린 시골장터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서로 제각기 자기 물건을 팔기위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모습들과 흡사했다.

동아리 연합회 출범식과 집회, 가두 모 집 등은 참여자동원에만 급급했었다.

행사 이전에 학생회는 협의하여 의견절충을 할 수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없이 행사와 집회를 진행했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미리 정해진 행사를 미룰 수 없다', '등록금 투쟁 집회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서로의 주장만 앞세웠다.

이 때문에 이미 계획됐던 서울 상경투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참여자동원과 사전 홍보의 미비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불참하는 간부 및 학생들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다.

학생회측이 신입생과 학우들을 배려했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또 학우들의 수업을 방해하면서까지 집회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기구이다.

이러한 대표성을 인식하고 학생을 위한 대표기구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야 할 것이다.

박현호 기자 terry@mail.dongguk.ac.kr

“이제, 우리가 ‘선거혁명’에 나선다”



유권자 네트워크 형성...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기준 제시

“투표는 국민 주권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투표합시다”

과연 대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게 될까. 정당의 정책을 보고 혹은 후보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고향출신’이라는 지역감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까. 20~30대 젊은층이 전체 유권자의 57%를 차지한다. 선거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의 힘이다. 이중 대학생들은 그만의 조직력으로 빠르게 힘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2일 전국 57개 대학 총학생회와 단과대 대표 50여명이 서울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2000년 총선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본부장=김소열 전북대 총학생회장)가 발족식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대학생들도 '선거혁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는 학생들의 투

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을 찾아가 '부패 무능 정치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청산'이라는 투표참여기준을 강연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단과대·동아리별로 총선 참여를 선언하는 릴레이 선언운동, 부패·무능 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한 버선달기 운동 등을 함께 펼쳐나간다. 릴레이 선언운동은 대학생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E-mail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유권자를 조직화 하는 운동이다.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높은 정치 의식을 갖기 보다 합리적·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 이전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낙선운동을 불법이라 규정 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명운동이라 할 수 있다.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주민등록까지 옮겨 표를 몰아주는 일은 역대 선거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던 선관위는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 이전운동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는 여력이 된다면 부재자투표를 학내에서 진행하는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어 4·13총선까지 부패정치에 대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정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4월초 낙선자 명단 발표와 함께 유권자 조직운동의 필연적 요구에 따라 '227만표 선언'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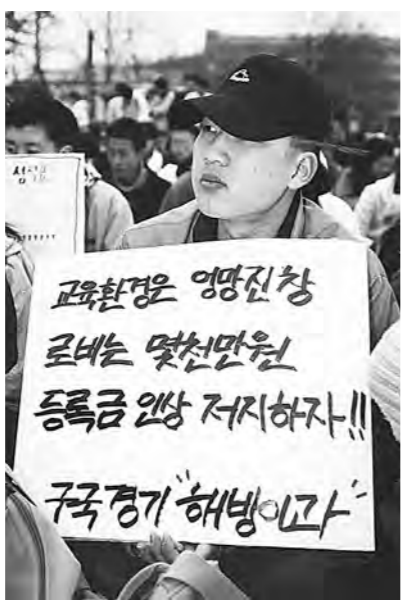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경기대 선 물로 비사건

청산되어야 할 대학가 관행·비리의 전형

등록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재정공개 이뤄져야



박지영 기자

다. 지난해 '웃 비리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들이 단지 관행·관례라는 말로 묻혀져 왔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부패·부패한 정치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재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대학사회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1월 27일 경기대에서 서울·수원 양캠퍼스 공동 추진하는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이 있었다. 이 날 총장실 접거에 나선 학생들이 총장 비서실장의 서랍에서 '실·추석 선물 명단'과 '술값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대학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가져왔다. 그 당시 발견된 자료는 A·B·C·D급으로 나누어져 국회의원, 교육부, 지방 자치장, 변호사, 언론사, 검찰, 공무원과 여러 계층의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이 한창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일을 "대학가 전반에 퍼져있

는 관행"이라고 무마시키는 행위는 현 대학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경기대 총학생회 허재호 정책위원장(산업학과 4)은 "이러한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유감스러우며 다른 학교들도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며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관례'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우리의 등록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길 바라며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관행·관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관습이 된 전례대로 행함'이라는 관행의 의미를 되살려 볼 때, 부정·부패를 감싸주는 방패의 역할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찾아 그것을 이어나가는 '관례'를 만들어야 하겠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의 강훈식(건국대·경영대4) 상임집행위원을 만나

투표율 제고로 참여 민주주의 구현해야

-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는 다른 학생 운동 단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을 떠나 부패정치와 지역감정 조장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동의가 유권자 운동의 기본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청년진보당을 지지하는 학생운동 단체들도 있으나, 이들 처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진/김윤미 기자

강훈식(건국대·경영대4) 상임집행위원

단지 우리들의 투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합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부패·무능 정치인을 낙선시키는 것이 목표라 하겠다. 누구를 찍을 지는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 얼마전 한총련 등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낙선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반통일인사',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인사' 등을 총선연대에서 발표할 낙선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무관심으로 치닫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반통일인사,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인사 등을 낙선시키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가 낙선 명단에 올랐던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판에 반통일 인사,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인사 등을 낙선자 명단에 올리는 것이 일반 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에 맞을지 의문이다. 대중적이고 타당성 있는 투표 기준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총선 이후의 활동방안은.
=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총선 당일에 대학생 유권자 운동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대형 화면 아래 모여 선거결과를 같이 지켜보고 싶다. 그날의 결과를 마음에 되새기며 4년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 정치를 감시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연말에 국정감사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로 또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수 있지 않겠나.

-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리가 생각없이 던진 한 표는 정치를 더욱 퇴보하게 만든다. 그러나 조직화된 한 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를 떨게 만들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심판의 시작은 유권자 운동이며 그 끝은 '표'이다. 위력적인 투표권 행사로 무능·부패 정치인을 심판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사회부



260차 금요일 집회 미구법진, 양민학살 공식사파

이제 그만... 지난 17일 전쟁기념관 정문앞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벌어진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은 지난 2월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김성희(32세)씨 살인 사건 등의 미군범죄에 대한 규탄과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동아리 길라잡이

동아리에서 일상을 바꿔라!

동아리의 역사

‘대학 문화 꽃’으로의 새출발

대학 사회 재편 따른 능동적인 동아리 필요

국어 사전에서 ‘동아리’를 찾으면 목적 이 같은 사람들이 한 패를 이룬 모임을 이라고 한다. ‘목적 이 같다’라는 말이 거창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만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목적 이 같다’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그래서 왠지 ‘목적’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리로 정식 명칭을 바꾸고 자치적 학생공동체인 동아리연합을 세우게 되었다. 90년대 동아리는 과거의 동아리와 다소 ‘다른 목적’을 가지며 다양하게 발전해 나갔다. 암울하고 정치적 문제가 산재했던 시대, 하나로 모아졌던 동아리들이 이제 각자의 개성과 ‘목적’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전히 사회와 이념을 목적으로 두기도 하고 여가와 스포츠를 혹은 봉사 같은 목적으로 갖기도 한다. 21세기를 맞는 오늘날의 동아리는 더 대중적이고 다양한 목적들에 부합해 가고 있다.

세기말의 터널

씨클(circle)로 불리던 대학사회의 작은 모임들이 동아리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80년대 말부터였다. 70년대 군사정권의 민주화 운동, 80년대의 암울한 대학상황 속에서 동아리와 동아리 연합회는 대학인만의 자주성, 공동체성을 지켜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70년대 억압적인 대학사회 분위기는 동아리들을 역사와 민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70년대 동아리들의 ‘같은 목적’은 비민주적인 사회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었고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이념이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씨클연합회가 결성된다. 당시 대학은 정부의 3S(sport, screen, sex)정책에 따라 생생파티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연 등이 중심이 된 축제가 열리며 향락적인 분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이때 씨클은 향락적인 대학사회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도력의 부재와 비합리적인 운동 방식을 벗지 못해 씨클 그 자체뿐 아니라 씨클 연합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80년대 말, 대부분의 대학은 씨클에서 동아

을 지나 21세기의 대학은 학부제, 모집단위 광역화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사회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대학사회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 동아리의 역할과 성격도 달라져야할 때이다. 과거 학생회가 가졌던 결속력, 자치력이 대학사회의 재편과 함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인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공동체로서 ‘같은 목적’을 가진 동아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대학문화 꽃’으로 불리는 동아리가 봉오리를 맺고 꽃잎을 활짝 펴고 드디어 열매를 맺는 21세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최은진 기자



동아리 일년나기

2000년 3월 동국대 사회과학부에 당당히 합격하진 뺑뺑(00학번) 동순이. 하지만 모집단위 광역화로 발붙일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동아리 선전 대자보였으니. 이에 환호하는 동순이의 한마디. “그래 이거야. 나는 이제부터 동아리에 살고 동아리에 죽으리라~!!”

파란만장하게 펼쳐질 동순이의 ‘동아리 일년나기’를 타임머신을 타고 살짝 따라가 볼까?

하루 2개는 학교에서 해결하는 동순이. 오늘도 역시 3월이 들어간 중창동아리 ‘우리두리’의 선배를 만나자마자 “선배~ 밥사줘요! 밥~!”, 식당으로 함께가며 “너 내일부터는 국물도 없어!”라고 눈을 흘기는 선배.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그렇게 보낸 한달도 잠시. 드디어 동순이에 걸었던 엄명. “너도 내일부터 연습시작하자!” 이에 동순이는 마냥 기쁘지만 하다.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동아리실에 가보니, 함께 들어온 동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

미, 술, 미, 도” 바로 발성연습. 그래도 동순이는 마냥 신이 난다.

그렇게 저렇게 노래연습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5월. 대학마다 축제의 열기로 뜨겁다. 이에 얽매어 있을 동순이가 아니다. 축제마당에서 ‘우리두리’의 실력을 맘껏 뽐내고 싶지만, 그전 2학년 선배들의 몫. 열심히 박사만 칠 수 밖에 없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2학기가 시작되고 동연제 준비에 바쁜 우리의 동순이. 이제는 무대에 서는 고경쟁버가 되는데, 이에 으쓱거리던 동순이가 드디어 사고를 치고야 말았으니. 무대에 올라가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동순이는 프로였다.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열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동연제가 끝나고, 동순이가 울음을 터뜨리지만, 선배들은 그런 동순이가 예쁘지만 하다. 열정이 있으니까.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동순이는 벌써부터 마음이 실린다. 2001년 2월에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에서 만나게 될 뺑뺑(01학번)이들이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3월, 불상 앞에서 ‘우리두리’의 동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두리’의 문을 두드린다. 이에 환하게 웃어주는 우리의 동순이에게서 제법 선배티가 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창 꽃들이 필 무렵. 불상 앞에서 ‘우리두리’의 뺑뺑 동달이를 만나고야 말았으니. 이에 씨익 웃으면서 의미심장하게 던지는 동달이의 한마디. “선배~ 밥사줘요! 밥~!” 이에 동순이 잠잠해 한마디 한다. “너 내일부터는 국물도 없어!”

그렇게 또 ‘우리두리’의 일년은 시작되는 가보다. **표은영 기자**

bluerain@cakra.dongguk.ac.kr

동아리 탐방

서울캠

학술 1분과 -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며 진보적인 학술문화와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하는 동아리들.

- 사우회(史友會) : 다시 쓰는 역사! 진보 역사 학술 동아리.
- 맑스철학연구회 : 감성의 곁대기를 벗고 이념의 어둠을 사르며 과학적 실천 도모.
- 민중미학연구회 : 편견없는 눈으로 진정한 미를 탐구한다.
- 민중사랑 : 노동의 가치와 현실을 고민하는 노동문제연구회.
- 민족사연구회 :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동양의 역사지!
- 셋바리 : 올바른 여성관, 남성관, 나아가 올바른 인간관의 정립.
- 진보연론 연구회 : 언론과 문화의 상관관계 연구.

학술 2분과 - 자연과학 및 기타학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동아리들.

- TIME(영어연구회) : TIME지와 함께하는 세계인식.
- 도올리 : 국선도 단전호흡.
- 통계조사연구회(DUSSA) : 통계조사 활동을 통한 자료처리 능력 배양, 정보교환.
- 동국대 컴퓨터 연구회(DUCA) : 컴퓨터 프로그램 전시회, 세미나, 컴퓨터 language 특강.
- KCC(한국상경학회) : 순수학술 연구단체, 이론과 실습을 통한 경제적 현실분석 연구.
- HAM(아미추어무선통신연구회) : 교신을 통하여 경험, 지식, 사고성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
- 문화재 연구회 : 우리 문화에서 세계 문화를 찾는다.
- 영어회화연구회(MECS) :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회화 모임.
- 자연과학연구회(N.S.A) :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향분과 - 살아가는 모습을 예술을 매체로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동아리들.

- 목적 : 목판위에 칼로 세상을 그리고 흑과 백으로 세상을 찍는다.
- 동국 서도회 : 목향 그윽한 한자공부 동아리.
- 동국 문학회 : 글쟁이를 바글바글한 사람 댈새나는 동아리.
- 민화열 : 민화를 좋아하고 보고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
- 디디들 : 영화공동체.
- 그리고...그림 : 순수 미술 동아리.
- AD-RUSH : 세계를 뛰어넘는 창조정신, 광고동아리.
- 동그라미 : 직접 사진을 현상·인화하는 사진 동아리.

공연분과 - 무대와 삶을 활발한다.

- 민속극 연구회 ‘탈’ : 탈춤, 풍물, 마당극 동아리.
- 몽계구름 : 하나뿐인 순수 창작음악동아리.
- 이리랑 : ‘한사람의 노래가 만인의 심금을 울린다’ 민중 가요 동아리.
- 현여울 : 클래식 기타 동아리.
- 극예술 연구회 : 극적인 대학생활, 예술적인 예술대학을 위해! 연극 동아리.
- 불교합창단 :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내는 영혼의 소리가 함께한다.

사회분과 - 사회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아리들.

- 불교학생회 : 불교연구·신행 동아리, 사찰순례, 법회, 수련회 등의 활동.
- 호우회 : 보훈 장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
- UNSA(유엔연합학생회) : 모의 유엔 총회, 타지회 UNSA와의 교류활동.
- KUSA-D : 연합봉사동아리.

봉사분과 -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소의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 동아리들.

- ELF(Education/Love/Friendship) : 낭만이 있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
- 농어촌 연구회(푸름누리) : 농어촌 현실에 대한 연구·체험.
- 길 : 알차고 따뜻한 웃음과 정이 있는 동아리.

- 손짓사랑회 : 수화 기초반을 통한 수화교육 실시 청각장애 관련 봉사활동.
- PTP : 세계의 문화와 봉사활동의 만남.
- 젊은 새이웃 : 천사같은 아이들과 공부하는 느낌을 느껴봐!
- 대한 직입자(R.C.Y.) : 한철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동아리.

체교분과 -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한 심신을 기우는 동아리들.

- 검도부 : 검을 끼고 도를 닦는다.
- 경당치우 : 고무려 벽화속의 무사들이 부활한다.
- 비합소리 :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 신비로움 : 신비로운 동굴탐험, 자연 생태계 조사, 배낭여행.
- 산악부 : 등반활동 동아리.
- 아미추어 농구부 : 농구 동아리.
- 유스 호스텔 : 여행동아리.
- 토토 축구회 :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DUTC(동국대 테니스 학생회) : 테니스와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을, 테니스 동아리.
- 아미추어 야구부 : 수도권 30여개 대학이 함께하는 리그에서 직접 땀다.
- 선무부 : 태권도 동아리.
- 기우회 : 바둑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
- 스키부 : 스키와 함께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 탁구 동호회 : 탁구와 함께 뜨겁고 진한 우정을 쌓는다.

연구분과 - 전문적 학술영역을 연구하는 동아리들.

- 경영학 연구회 : 경영학을 대상으로 분석·토론.
- 경제학 연구회(F.O.D.E.) : 경제학의 폭넓은 이해를 통해 인격수양, 현실직시의 안목을 기른다.
- 무역학 연구회 : 무역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과 개인의 발전.
- 정치학 연구회 :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 연구 모임.
- 회계학 연구회 : 순수한 학술 연구모임으로서 회계학과 제반 학문을 폭넓게 연구하는 동아리.

경주캠

사회봉사분과

- 불교학생회 : 불교를 널리 홍보하며 수행정진으로 심신을 수련.
- 마음소리 : 불교사상에 입각, 수화를 배워 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포교를 한다.
- 동국 L.E.O : 라이온스 클럽의 지원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지도자 육성.
- 대지원 봉사단 : 지역사회에 봉사와 희생정신을 고양.
- 한울회 : 심신의 단련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 및 윤리관 함양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 영·리더 : 학교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담당할 참된 대학인상 정립.
- 호우회 : 순국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그 위업을 계승·발전 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토티캠프 : 국제로타리를 모체로 하여 모든 직업의 도덕성 고취 지역사회 발전 도모.
- Youth-JC : JC의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 미래사회의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 적십자회(R.C.Y.) : 봉사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학술분과

- TIME 연구회 : 시사주간지 Time을 연구하여 영어실력 향상 및 세계정세에 대한 토론을 통한 지식교환,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
- 조적연구회 : 문화유적을 답사·탐구함으로써 조상의 얼을 느끼고, 민족문화를 선양.
- 진보사회연구모임 :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추구.
- D.U.C.O. : 컴퓨터에 관한 이론과 기능을 익힌다.
- Power Toeic : 영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공부, 영어회화능력을 높여 사회진출준비.
- 겨레사랑 : 민족문제를 연구하여 조국통일 방향을 제시.
- Newsweek 연구회 : 시사주간지 News-

- week 학습 통해 영어실력 향상.
- TLS강독회 : 타임지의 시사문화평론 강독을 통해 다양한 문학섭렵과 영어습득.
- 문화포럼 ‘밀담’ : 문화론 학습을 목적으로 학내외의 문화현상을 분석·평가.

문예분과

-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활동으로 애국정신 고양요자 하는 몸짓패.
- 동국음악회 : 통기타 동아리로 대학인의 교양과 정서의 순화를 도모.
- 뮤토피아 : 블루스와 아가펠라 소개.
- 풍물패 ‘불휘’ : 고유의 멋과 얼을 이어가며 올바르게 대학문화 선도.
- 동국 연극회 : 연극을 통한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도모.
- 솔메리아 : 소리와 메아리가 합쳐진 음악동아리로 Rock, Metal 추구.
- 고전극 연구회 :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
- 해방몸짓 : 민중의 삶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창작, 몸짓으로 승화하여 표현.
- 남밖쪽 북녘하늘 : 삶의 노래, 진실의 노래를 지향하는 노래패.
- 큰저소리 : 음악동아리로 대금연주를 통해 한국음악의 대중화에 노력.
- 소리창고 : 음악으로 대학문화와 기성문화를 접목하여 한차원 높게 발전시킨다.
- You-Loss : 댄스동아리,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대학생활을 영위.
- QUEST : 패기와 젊음의 응원 동아리.
- 함양샘 :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비판, 올바른 민족문화와 민중의 정서를 담은 노래패.

교양분과

- 서리별 다우회 : 전통차를 중심으로 차정신의 함양과 다례를 몸에 익힘.
- 동몽회 : 서예를 통한 인격도야 및 서도인의 자변 확대를 위한.
- 필화모니 :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여 정서의 순화와 회원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

하늘·땅의 사람들 : 사회와 시대상황에 대한 방향성을 그림이나 관화로 제작.

- 영화모임 ‘소낙비’ : 순수영화 창작·소개 동아리.
- 영 상 : 순수사진예술의 창조와 더불어 자유와 평화, 사랑, 진실을 바탕으로 진리탐구.
- 유스 호스텔 : 여행을 하면서 대학인으로서의 젊음과 꿈 그리고 낭만을 실현.
- X-COOPY : 광고연구와 창작을 통하여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경험 축적.
- 아미추어무선극 : 전파매체를 통한 대학문화의 창조적 역할을 수행.
- 동국 문학회 : 문학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의욕 고취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METAL AGE : 음악동아리로 Rock을 통한 젊음의 발산과 지성인으로서 순수문화 추구.
- 또 다른 이야기 : 민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체육분과

- 동국유도회 : 유도를 통한 인격도야 및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 동국볼링클럽 : 건전한 스포츠 정신함양,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볼링의 저변 확대.
- 미식축구부 : 심신을 단련하며 미식축구의 저변 확대.
- 달레마 : 축구동아리로 체력단련과 친목도모.
- 화랑 선무부 : 태권도를 통한 자아의 건전한 인격수련.
- 요트부 : 체력을 단련하여 불굴의 의지로 자아를 발전시킨다.
- 신라 택견회 : 택견을 통해 민족본연의 얼인 선비정신을 배운다.
- 산악부 : 산악활동으로 학술적 연구와 산의 웅대한 기상과 극기를 터득.
- 동국 배드민턴 : 친목도모 및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
- 동국농구부 : 농구 동아리로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마음과 정신 함양.
- 테니스 학생회 : 테니스를 통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을 지닌 엘리트 양성.
- 돌핀스 농구부 : 농구부 통한 스포츠정신의 함양과 기술을 습득.

달하나 천가에

거울을 깨라



유지나
예술대
영화영상학과
조교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주체형성과정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거울이 남성의 시선을 대체하는 것이며, 남성시선에 맞게 자신을 형성하는 매개체란 점을 여성이 집단적으로 의식한 것이 페미니즘의 시작이다.

계모가 백설공주를 집투하게 된 계기도 거울이 백설공주가 그녀보다 더 예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권에 퍼져있는 약녀이야기, 여성들간의 질투담은 예쁜 여자 대 미운 여자의 대결구조 속에서 미를 담보로 한 권력투쟁담(권력자 남성의 사랑 받기)을 권선징악 도덕담으로 각색해서 들려준다. 이런 신화적 거울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의식으로 남아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미스코리아 대회도 여성을 아름다움이란 가치로 쫓아 세우는 상징화된 남성시선의 거울이다. 미스코리아가 지성미와 육체미를 겸비한 전인적인 여성의 가치판단 대회라고 믿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화 만들기와 영화보기를 지배하는 카메라의 시선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카메라로 확보되는 영화의 시선은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관습으로 굳어져 왔다.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지만 스크린에서 여배우의 수명은 남배우보다 단명했다. 남성의 거울에 자신이 색시하게 비춰지도록 애를 쓰던 강수연이 더 이상 말을 역이 없으며, 심해진도 스크린에서 만나기 힘들다. 얼굴에 잔주름이 조금씩 드리우면서 연기와 인생의 깊은 맛이 배어날 무렵 한국 여배우들은 대체로 스크린에서 사라진다. 성욕 강박적인 남성 판타지의 거울이 그녀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서글퍼하지 않는다. 언론과 영화계는 새로운 트로이카 여배우세대를 환호하면서 남성 이너씨클을 스크린에 재생산하기에 바쁘니까.

남성 판타지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것은 여배우만이 아니다. 남성의 거울에 자신이 더 근사하게 비추도록 여성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고를, 자신만의 거울을 만드는 노고로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 남성 각자가 개개인의 생각과 방식대로 만든 여러 개의 거울을 세상에 유포시켜야 한다. 그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억압하는 성차별주의의 음모를 깨는 것이다. 혹시 당신의 손거울이 당신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고 말하거든 그 여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 거울을 깨라. 혹시 당신의 남자가 자기 거울에 당신을 맞추려 들면 그의 다른 손에 당신이 만든 거울을 돌려 주라. 그리고 남자에게도 자신만의 거울을 만드는 기회를 누리라고 알려 주라. 그것이 일상의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강단의 것이 아니며, 여성학만의 것은 더욱더 아니라 일상의 거울을 다시 만드는 일상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숨결 시사회를 다녀와서

'낮은 목소리가 긴 숨결을 토해내다'

7년간의 다큐멘터리 종지부 ... '일본군 위안부'의 아픔을 상기하는 영화 되길

어둑어둑 해질무렵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숨결'의 시사회장을 찾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들과 영화를 보기 위해 찾아온 여러 사람들로 시사회장은 시작부터 술렁거렸다.

귀를 기울이면 가슴으로 전해져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7년에 걸친 낮은 목소리가 드디어 긴 숨결을 토해냈다. 변영주 감독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들을 화면 가득히 보여주고, 우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며 기억을 환기시킨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로 자리잡은 '나눔의 집'을 무대로 할머니들의 일상을 쫓아가며 상처에 대한 치유를 끌어냈던 '낮은 목소리' 1, 2편. 그리고 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숨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다.

故 강덕경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던 변영주 감독과 스태프들의 모습에서부터 영화의 막은 올라가고, 시사회장은 조용하지만 하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인에게 끌려갔다가 61년만에 고향을 방문한다는 김분선 할머니, 무의식상태로 지내는 중에도 "사람은 보이더라"는 심달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공감하게 한다.

최근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적어온 일기로 전태일문 학상을 수상하게 된 김윤심 할머니의 일기장 한켠에는 '나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과거/ 그나마도 이 불행한 어미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딸 예숙이까지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내 딸/ 내가 죽어 가 루가 되어도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나로 인한 불행을 다할 순 없다/ 하지만 나 혼자만 알고 살아야 한다' 라고 써있다. 영화의 막바지에 들려오는 이와같은 김윤심 할머니의 증언은 우리가 역사 속의 약자를 얼마나 외면했던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영화가 끝난 후 사람들의 표정은 가지각색이다. 영화시사 내내 울어서 눈이 부은 사람, 한숨으로 가슴의 답답함을 씻어 보려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 아무말 못하는 사람 등등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변영주 감독의 소개로 할머니들이 인사를 하는 내내 사람들의 박수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숨결'은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 속과 역사의 뒤안길에 묻힐 뻔했던 이야기를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 리포터가 되어 다른 할머니들을 인터뷰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은 역사



의 산증인으로서 영화를 만들어 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몸짓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며, 함께 아파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와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숨결은 지난 18일부터 서울은 아트선재센터, 부산은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상영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낮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그날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은영 기자 bluerain@akra.dongguk.ac.kr

통화대기 광고

일석삼조 광고, 2% 더 효율적으로

무의미한 신호음, 광고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돋보여

이제 핸드폰을 이용할 때 지루한 통화 대기기를 대신 광고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질 동안 나오던 신호음에서 한 차원 나아가 광고를 들음으로 이동통신사, 소비자, 광고주 3자 모두에게 혜택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 벤처업체인 (주)기계정보 통신에서 개발한 '에드콜 서비스'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기계적인 작동이나 조작 없이도 회원 가입만 하면 실질적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은 콜센터, 반송엽서, 홈페이지, 대리점 등을 이용하며 무료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광고를 청취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무료통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통화당 일정액수의 요금이 할인된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미지 개선효과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우위 요소로도 활용이 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존고객의 호감도가 증대되는 이점을

가진다. 광고주는 저렴한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며 연령별, 성별, 직업별, 거주지역별 타겟 마케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CS(Ad Call Service)는 5월부터 시험서비스와 회원 모집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들은 총동구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정액수의 요금할인을 빌미로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을 조장할 수도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것에는 항상 우려가 뒤따르지만 무의미한 신호음에 불과하던 통화대기음을 유용한 자원으로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또한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어 환영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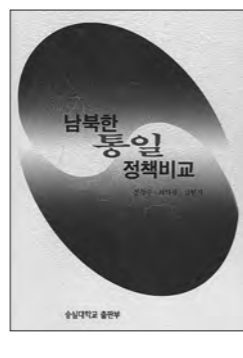
적멸의 즐거움



생사의 자유를 누린 선사들의 입적 과정과 임종계를 정리하여 엮음. 죽음을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로 본 정후 스님의 신작 수상집이다. 죽음을 예감하고 여행을 떠나듯 임종을 맞은 선사, 앓은채로 입적하거나 서서 열반에 이른 선사들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자유롭고 아름답게 받

아들이기를 권한다. 우리 출판사 펴냄/김정후 지음, 정가 7천원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과 자료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갈 학술 연구서

로서 남·북한이 취해야할 자세에 대한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숭실대학교 출판부 펴냄/전득주·최의철·신현기 공저, 정가 1만 3천원

거지성자

머나먼 이국땅 킬른에서 만난 성자 페터 노이아르와의 7년간의 만남을 고스란히 옮겨 적었다. 육방에서 벗어난 무소유의 삶을 깨닫고 몸소 실천한 노이아르와 함께 한 체험을 신비스럽게 털어놓는다. 가난은 정신의 빈약함에서 나온다며 문명의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는 현대인들에게 맑고



깨끗한 정신을 소유할 것을 강조한다. 선재 펴냄/전재성 지음, 정가 7천 5백원

이창배 교수 전집

90년 본교에서 정년퇴임한 이창배 교수 전집 1차분(여섯권) 기존에 발표했던 글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어원문과 오석을 바로잡고 읽기 편하게 문체를 손질했다. 1차분은 '영미 시 걸작선'(1만2천원), '미국 초절주의자 3인선'(1만5천원), 'T.S.엘리엇-문학비평'(1만5천원),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학의 위기'(1만 8천원), '광안의 변'(2만원), '실락원·장사 삼손'(1만7천원)의 6권이며 2차분은 2002년 12월 2일 발간될 예정이다. 이창배 교수가 30~40년 전에 출판한 번역서들 가운데 후세에 남기고 싶은 것만을 엄

선해서 다듬어 냄. 동국대 출판부 펴냄/이창배 지음



매체비평

음반 편

일본영화 O.S.T. (Original Sound Track)

“러브레터 VS 원령공주”



미야자키 히야오의 '원령공주'와 이와이 수운지의 '러브레터'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배경은 눈이 많이 내리는 눈고장(설국)으로 일컬어지는 유노사와 온천이다. 이곳은 옛날에는 눈이 많이 내려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 고 한다.

영화 러브레터의 하얀 별관에서 검은 색 옷을 입은 히로코와 그의 애인의 장례

식 장면에서 나오는 O.S.T.의 첫 번째 곡은 'HIS SMILE'이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 하얀 세상으로 나오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 곡은 마치 연인의 죽음을 슬퍼하듯 긴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울한 멜로디가 이어진다.

일본의 설국 문화비에는 '기차가 터널을 지나 하얀 세상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러브레터에서 어린 후지이 이즈미가 하얀 눈밭에서 뛰어오는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음악의 분위기를 슬프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설국의 배경을 연상케 한다. 야스나리의 설국은 웬지 러브레터의 배경과 너무도 닮아 있다. 설국

에서 고마코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인을 그리워하는 히로코가 눈덮인 산을 향해 외치는 모습, 급경사가 진 산하리에 역새 이삭이 흐드러지게 피어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은 설국과 러브레터의 흡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이다. 설국에서는 가을 하늘을 날고 있는 투명한 허무와 같은 눈부신 빛깔로 전체적인 배경을 묘사한다. 여기에서 '가을 하늘'을 '겨울 하늘'로 바꾸면 러브레터와 쌍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비슷하다.

러브레터 음반은 국내에서 음반 판매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영화 흥행 성공의 여파가 지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즈음 발매된 히사시 조의 원령공주(미야자키 히야오 감독) O.S.T.를

반은 러브레터 음악처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러브레터는 여성의 가슴을 울리는 아기자기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주류인데 반해 원령공주는 서사적이고 일본적 색채가 강한 스토리 구성 때문에 음악 또한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E.T.를 앞지르며 경이적인 히트 기록을 세운 원령공주의 음악을 작곡한 히사시 조는 영화음악(하나비)과 애니메이션을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국민적 음악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웃의 토요로'의 작곡자로서도 너무나 유명한 그는 러브레터 O.S.T.와 비교할 때 일본적 색채가 강한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령공주 O.S.T.은 그가 꾸준히 추구해온 일본인의 서정성, 서사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최

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가진 요시카즈 메라의 원령공주 주제곡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원령공주 음악은 웅장한 사운드가 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에 아직 원령공주가 개봉되지 않아 음반을 접할 수 없으니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역량을 흡수하기 이전에 원령공주 O.S.T.과 같은 오류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가장 일본적이면서 가장 일본적이지 않은 두 음반을 통해서 일본의 프리즘적인 문화적 배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문화 수용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상훈
대학원 사회학 석사과정

이색 전시회,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신선한 발상, 개방적인 전시 공간 ... 전시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것

오래된 책, 오래된 그림... 세월의 무게가 덧입혀진 고전들이 주는 감동이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위와 역량 또한 함부로 가능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집행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꺼운 유리 사이로, 거대한 아치로 둘러싼 박물관에서, 그도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만 해도 그렇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세기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작품 일색이다. 넓은 복도, 우아한 실내에 걸맞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오래동안 박물관, 전시물이 주는 이미지

란, 오래되고 유명해야하고 뭔가 거대한 의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깔끔한 실내, '만지지 마시오'라는 팻말,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기 어려운 난해한 그림들, 사람들이 인사동 거리의 몇몇 갤러리들을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것도 대개는 이런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웬지 부담스럽고 찾아가기 망설여지는 곳이 전시관이였다.

하지만, 조금씩 다양함과 신선한 발상을 무기(?)로 이와 같은 권위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시물의 독특한, 전시장소의 개방성등은 더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전시문화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인형에서부터 생활용품, 약세사리, 선물, 구닥다리 물건에 이르기까지 전시

물은 날로 기상천외해 지고 있다. 심지어는 종이접기까지도 공예품으로 승화시켜 전시회를 갖기도 한다. 이는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전시회라는 형식을 빌어 충족시켜가며 상업적 광고의 효과까지 함께 얻고자 함이기도 하다.

기존의 전시물이 순수예술 중심이고 전문적이었던 최근의 전시물들은 대중적이고 실용적이며 비전문적이다. 전문적인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전시회를 확장시키고 전시회의 꼭 짜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소한 물건들, 아무나 만들 수 있고 또 아무나 만든 것들을 대중들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전시한다. 예를 들면, '선물'을 주제로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혹은 주었던 것, 줄 것

들을 전시회에 내놓고 전시물을 직접 가져가게도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노라면 21세기의 문화는 점차 대중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 그로 인한 다양함들은 지금까지의 고급문화보다 오히려 대중문화에 더 잘 맞는 옷처럼 보인다. 지금껏 많은 것들이 권위에 대항하고 부딪쳐가며 발전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전시문화도 변화의 지점에 와있다. 다양성의 급격한 흐름속에 있어 산만한 움직임에 그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신선함과 개방성을 유지하며 조금씩 선입관과 견고한 권위를 변화시켜간다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감동적인 조우를 목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탐방기

자연속에서 살아 숨쉬는 신라인의 정취를 느낀다



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전시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라관과 자수 공방들을 비롯해 옛 신라시대의 모든 예술품들을 주제별로 전시해 놓아 전시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을 한국의 정취 속에 빠져들게 한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뚝뚝뚝뚝' 금발이 다듬는 소리는 장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나른한 오후 햇살은 '민속공예촌'으로 향하는 버스를 안내하며 비추고, 창 밖으로 스치는 낮은 기왓장 지붕너머로 울창한 울창한 피어 나는 노란 개나리 꽃망울이 더없이 따스한 봄 풍경을 자아낸다.

경주 박물관을 지나 불국사로 향하는 길목, 양옆으로 펼쳐진 나무숲 사이로 길게 드리워진 그들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3월의 봄향기 속에 흠뻑 젖어 들었던 30분간의 버스여행 끝에 도착한 '민속 공예촌'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황토벽의 정겨운 초가지붕 위로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와 그 속에서 툇 수염이 무성한 노인의 뚝뚝한 손마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기척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토기 빛의 작업에 열중한 노인의 뜨거운 눈빛은 어디선가 풍기는 아련한 흙내음과 함께 작업실을 압도하고 있었다.

경주시 하동에 자리잡은 '민속 공예촌'은 도자기 및 공예품들을 한자리에

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작업장과 전시실이 한데 어우러져 진경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전시관 사이로 난 굽이길을 돌아 가면 잔디밭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조형물들을 볼 수 있는데 높은 하늘을 향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인간의 외침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공예촌의 분위기 때문일까, 들숨성 숨어져 있는 돌조각들마저도 각각이 하나의 작품처럼 보인다.

공예촌을 돌아오며, 옛 신라시대를 향한 짧은 시간 동안의 여행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곳을 감싸고 도는 열기와 자연의 숨결은 앞으로도 긴 여운을 드리울 것이다.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바라봤던 붉은 저녁노을은 이곳의 초가지붕들을 더욱 정겹게 수놓고 있었다. 가슴 가득 차오르는 '녹색전시관'의 감동을 간직한 채 되새겨 보는 공예촌의 아름다운 풍경은 또 다른 손님을 기다리듯도 여전히 여유롭기만 하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이색 전시관

한국잡지 종합전시관

1995년 11월 개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잡지 종합전시관.

잡지의 역사를 둘러보기에도 좋지만, 약속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되는 대부분의 잡지를 볼 수

종이미술 박물관

누구나 어린시절 종이비행기나 종이배를 한번쯤은 만들어 보았을 것이다. 한 장의 종이에 꿈과 희망을 실어 띄워보내던 그때의 그 추억, 이 곳에서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줄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지하철 전시장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문화 생활을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 직장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일상 속의 작은 휴식공간. 이 곳은 바쁜 중에도 5분의 여유만 있

있으며 폐간된 잡지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또 판매용 잡지도 마련되어 있어 마음에 드는 잡지를 골라서 사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전시관내에는 전시용 책들이 각 1권씩 전시되어 있어 책을 읽거나 관람하는 데 편리하다. 또 간이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자판기 커피 한잔이나 음료 하나라도 카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950년도의 '백조'나 '창조' 같은 오래된 잡지도 전시하고 있다. 한국잡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열람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토 6시) 종료 37가 시사영어사 건물 지하 2층, 입장료 무료.

희망을 실어주는 종이 미술 작품 일백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이접기작품 외에도 종이를 일정하게 찢어 놓은 후 그 종이를 꼬아 만든 지승공예, 다종이 인형, 한지를 붙여 그림을 만드는 한지 그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불상제작방법 중 하나였던 종이로 만든 부처상인 '간질지불'도 전시되어 있다. 열람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 3번출구 종이나라 빌딩 3층, 입장료 무료.

으면 충분하다. 지하철을 타고 오가는 가운데, 잠시 서서 눈길이 가는대로 감상하면 되기 때문. 이러한 지하철의 간이 전시장은 시청,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내에 설치돼 있다. 현재는 3·4호선 충무로 역에서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주제로 미술품이 전시되고 있다.

밀레의 '이삭줍기'나 모네의 '정원', 반 고흐의 '해바라기' 등과 같은 미술품이 비록 진품은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금의 여유를 나누어 주고 있다.



메아리

동상이몽

▲문화산업의 기본적 인프라로서, 전세 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민적 정보화의 급자탑, 게임과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발전적·획기적인 지역문화 공간.

전 국민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 공간, 외환위기를 겪던 와중에도 전국적으로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급속하게 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문화 인프라.

▲스무고개라도 해야할 것 같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적·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 강도 높은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한 이 문화공간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PC방이다. 바야흐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게다가 IMF를 맞은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낸 효자산업이라는 것이다. 왜? 수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 게다가 중년의 아저씨들까지도 PC방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제도 살리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소양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이 거국적인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 산업의 급자탑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고등학교에서 부는 남학생이 나체가 가득한 화면을 클릭하고 있고 또래의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보면서 지나간다. 주인은 텔레비전만 볼 뿐 관심이 없다. 물론 담배연기는 자욱하고, 고등학생들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바로 문화 급자탑에서 말이다.

▲우리는 PC방에서 상반된 꿈을 그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산교육의 현장을 보면서 행복한 꿈을 꾸지만, 그 이면에는 음란 정보와 흡연에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또 다른 악몽의 현

실이 있다. 전쟁, 호한, 마마보다도 무서운 것이 음란물이라고 하지 않은가, 문화 급자탑에서 음란물과 흡연에 찌들어가는 아이들이 보인다. 청소년 보호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PC방 실태에 대해 무지한 현 정부의 식견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과연 PC방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문화 급자탑인지, 정말이지 몰라, 알 수가 없다.

최은진 문화부장

소나기

외국어 공부



△외국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국: 국어도 잘 모르는데 어: 어느 누구나 다 하니 공: 공부해야겠지. 부: 부지런히 △외국어 공부는 선택이다. 아무리 세계화라도 자기 모국어를 먼저 확실하게 해야한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걸까? △통대생 공부 좀 합시다! △외국어 강좌 좀 들려주세요. △외국어도 좀 보내주고, 영어수업도 늘리고 학교에서 파악 밀어줘잉~ △정말 열심히 해야지 △외국어 공부? 해야겠지 △공대는 외국어 모르면 수업도 못 듣는다!?! △독어를 배운자만이 외국어를 논할 수 있음. ... △휴학생, 미국으로 떠나다!! 그 옆에 있는 또다른 휴학생은 인도도 난다!! 휴학생 만세! △WJ 420 나왔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 FIGHTING!! △공대생 영어공부 못한다죠? 근데 정말 필요하지요. 취업해서 오래오래 돈벌고 싶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나를 포함한 우리학교 애들 너무 공부안한다. 모의토의 900점이 최고라니!! △숙... 그거 내 점수 2배네!! △필요하고 할 사람만 하자 △왜! 국어공부는 안하는 겁니까?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하기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하게 만들자~! 여기는 한국어이지 미국이 아니다!!! △을 학교에서 외국어는 중국어·영어·일본어밖에 음파!!! 내는 판나라말도 배우고 싶네!!! △열라해도 본보기만 안통한다~ 유학갈 능력 안되면 시간낭비하다! △을 나라 외국어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외국어 공부 다 하면 돼!

떠나버린 새

돌아올 금장낙안을 기다리며...

「암탉의 집은 동우리, 토끼의 집은 굴, 팔레스타인들의 고향은 어디에 있나? 팔레스타인들의 고향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지금은 빼앗겨 살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빼앗긴 고향을 되찾을 수 있을까?」 20여년간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고군분투하던 PLO대원들이 12년간 몸담았던 점든 레바논을 떠나 정착없는 유랑의 길에 오르던 날 베이루트 시가지는 온통 눈물과 비장한 결의로 가득했다. 울분을 삼킨채 떠나는 한 병사는 외쳤다. 「이것은 하나의 작별일 뿐, 우리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만난다」

겨우내 잔뜩 움츠려 들었던 온방골에 개강과 더불어 동국인들의 힘찬 발걸음이 찾아 들면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 동국의 새식구가 된 새내기들의 희망에 찬 모습은 봄이 오는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교정을 싱그럽게 가꾸어가고 있다.

방학을 맞아 떠났던 학생들과 캠퍼스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 왔으나 지난 초겨울 울음 소리없이 사라져 버린 진흥관 뒷편 소나무 숲속의 새떼들은 아직 돌아올 줄 모르고 있다.

과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 새떼가 어떠한 새인가. 옛부터 이 지방에 전해내려오는 경주8기(畵)중 금장낙안(金丈落雁)의 후예가 아니던가.

서산(西山)의 낙조(落照)와 함께 청송에 내려 앉는 기러기떼의 군무(群舞)를 상상이라도 해보라.

80년대초 경주에 처음 왔을 때 예기소

(일명 애기청소) 위 금장대 솔밭에 동지를 뜬 흰 새떼들은 금장대를 가로지르는 기적소리가 싫었는지 어느날 지금의 경주 병원터로 옮긴후 병원건설에 맞춰 진흥관 뒷편에서 정각원에까지 이르는 소나무위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충 어림잡아 많을 때는 500여마리나 필적했다. 심지어 캠퍼스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면서도 신통하게 교정에 배설물 하나 흘린 적이 없었고, 지저귀는 새소리 때문에 강의나 연구에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도 없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 힘든 것처럼 동지를 떠나 버린 새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은 태풍(특히 글라디스 태풍)과 홍수로 명주실 한꾸러미가 다 풀어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었다던 무너오의 무대도 예전의 그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새들의 날개짓과 더불어 정든 고향을 떠나 객지생활에 고달픈 내영혼을 그나마 위안해 주던 광경들이 아니던가.

새떼들이 떠나버린 황량한 마음에서 왜 떠났는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한 순간의 작별일 뿐 우리품, 아니 경주사람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라. 그리하여 고향방 언덕에 오렌지 밤을 일구며 살고 싶다면 팔레스타인들의 소박한 꿈처럼 금장골 어느 숲에 보금자리를 틀 그 모습을 또다시 볼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려 본다.

박용하(경주캠 기획처 기획예산팀/과장)

수강신청에 대한 다른 생각

아웃소싱 통한 수강신청의 단점보완 요구

이러면 어떨까? 일년이면 두번씩 우리는 드림스에 접속을 한다. 왜?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 학교 컴퓨터가 접속량을 못따라간다는 것이다. 늦게 접속하면 아마 한시간은 계속 클릭해야 한다는 것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일년에 2번 아니 4번있는 행사를 위해 학교 컴퓨터를 바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놀기 때분에... 그렇다고 해마다 요즘같은 때에 이런 연례행사를 되풀이한다는 것도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사람들이 안 찾아와서 난리인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찾아오기만하면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는 사이트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수강신청

에 아웃소싱을 주는 거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을 하면 절대 접속 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몇 만명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니깐... 그러면 일석이조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닐까? 굳이 힘들다면 우리 동문이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인 옥션에다가 애기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 학적과에서 싸인 받아 입력하는 것은 다 끝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수강신청에 대한 동대생 생각



본분에 충실... 떠돌이하던 학기초의 부산함도 이제는 가리앉은 듯... 과제물과 씨름하는 학우들의 모습은 진지해서 아름답다.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 1290호 동대신문을 읽고

서울캠 위주 탐기사 오해소지 부른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홈페이지 소개 필요해...

이번호는 1면 탐기사에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 개원예정 소식이 실렸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정보통신과 인터넷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목 뛰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 창업에 대해서도 학생, 교수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대단하고 사회적으로 벤처 열풍이 불어치고 있다.

경주캠퍼스에서는 작년 가을에 벤처 창업보육센터를 오픈하여 오는 4월경에 첫 성공기업을 배출할 예정으로 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도 정상적으로 개원하여 시대에 걸맞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중추기관으로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가를 창업보육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사에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소식이 간략하게나마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당국에서 타대학에 뒤처지지 않도록 건물과 시설,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대구·경북권에서는 최고의 창업환경을 갖춘 벤처창업보육센터가 경주에 이미 설립되었는데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만을 대상으로 타대학보다 늦은듯 기사화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처음에는 10대나 20대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에는 가치있는 정보가 많은 까닭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홈페이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홈페이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인터넷의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문사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홈페이지를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

대학 1학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소개되는 유익한 도서목록과 같이 인터넷 필수탐방 홈페이지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소개가 되었으면 한다. 누가 뭐라해도 앞으로의 세상은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한동주(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직원)

TEL : 22603491 · 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육개장(1500) 개맛살간짜기(1500)
화	사골우거지탕(1300) 오징어이채볶음(1500)
수	햄찌개(1300) 닭갈비(1500)
목	소고기명면밥(1300) 생선까스(1300)
금	설렁탕(1300) 모듬소스볶음밥(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300) 공치통조림찌개(3300) 양념통닭(1500) 돈나갈비구이(3500)
화	갈비탕(1500) 설렁탕(3300) 미트소스볶음밥(1300) 철판볶음밥(3300)
수	사골우거지국(1300) 조기매운탕(3300) 오징어탕수(1500) 불나물비빔밥(3300)
목	소고기버섯찌개(1500) 콩나물국밥(3300) 제육볶음(1500) 상록정식(3000)
금	만두국백반(1300) 튀김우동(3300) 치킨까스(1500) 버섯불고기덮밥(3500)

(단위: 원)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가 무사히(?) 끝난거 축하드립니다. ^^ -애벌레
△은선아! 정기자된 거 무지무지 축하해... 열심히 해! ^^ -문숙
△3월 26일 지은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뿌니
△은서니의 이사를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자취방을 우리의 생활방으로...^^ -pisk20
△넌넌 늦었지만 싸랑하는 비단 이파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pazama0200

수고하셨습니다

△"Fearless Dawn"의 멋진 정기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모두들 공연 준비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공대 학우여러분! 등록금 동결 학원자주정취에 떨쳐 일어납시다. -하늘
△2000년 등록금동결의 선봉 생자대! 학자투신포식에서 동아최고의 모범이었습니다. 생자대 사랑합니다. -총학생회 하철
△백두대간 파이팅! -sky
△스더어 불이다~ 불나들이 가자!!
△서울 중앙여고 동문회 좀 합시다. 얼굴보고파요~!
-중앙여고 98년도 졸업생
△감언오빠!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은진이가

알립니다

△사회과학대 북한학과가 연합행사를 간략하세요!

온방글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95학번 서정수(불교문화대 조교선생님)의 생일을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감축 드립니다. 현재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길... -불교학과 4학년이
△경상학부 해도의 제대를 축하합니다. -완섭
△유호에게, 가까이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 정말 22번째 생일 추가! 추가! 그리고... -여니가

수고하셨습니다

△방중부터 오늘 출석까지 쉬지도 못하구... 넌 수고하셨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식구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아요. 이제까지처럼 단합된 모습으로 사

업 열심히 해요. 동아리 연합회 식구들(동원 짱, 현숙언니, 준석선배, 정남이, 효진이) 사랑합니다. -동·연 학술

열심히 합시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려는 너네들이 넘넘 예쁘구나. 끝까지 지금 그 마음으로만 하자. 올샘 파이팅! -연니가
△가영, 성운아 1년 동안 금불회 활동 열심히 해줘~
△은경아, 순진아, 새내기 열심히 모집해라. 고·적에 신입생 많이 모아길 바랄게.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친구가

그리고...

△우리 자대 A반 새내기들! 사랑한다~ -덴!
△학교운동장 철봉과 평행봉은 누가 뽑아놨나? -naked 74
△안정호 오빠! 당신의 팬클럽이 결성되었습니다. 너무 멋져요. 오빠 아시나요? -금금하지?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속음배추국(1300) 오징어무국(1300) 하이리이스(1500) 함박스테크(1800)
화	미역국(1300) 돼지국밥(1300) 김치볶음밥(1600) 해물덮밥(1800)
수	무채국(1300) 감자파프리카(1300) 불고기덮밥(1700) 케라리스(1500)
목	쇠고기무국(1300) 열무된장국(1300) 햄이채볶음밥(1600) 스페이티(1800)
금	조개이육국(1300) 순두부찌개(1300) 설렁탕(1800) 돈육볶음밥(1600)
토	미역두부볶음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일	배추국(1300) 오징어덮밥(1600)

(단위: 원)